

제541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7년 5월 17일)

사천왕상이 표현된 사리기

권강미 | 302호 금속공예실 | 18:00~18:30

사천왕四天王은 인도 신화시대神話時代의 호세신護世神 또는 방위신方位神이 불교에 습합되어 불교의 호법신護法神으로서 여러 경전에서 설해지고 있는 천부신天部神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불교의 전래와 함께 삼국시대부터 사천왕상이 제작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나 현존하는 작품상으로는 통일신라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유행한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호국적인 염원이 강한 삼국통일을 전후한 시기부터 활발히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통일신라시대에 유행한 사천왕상은 중국 당代唐代에 정립된 분노한 얼굴에 갑옷을 입은 무장한 모습으로 사리기舍利器, 석탑石塔, 승탑僧塔, 석탑石塔 등의 장엄조식莊嚴彫飾으로 표현되어 있다.

사리기舍利器에는 불사리佛舍利 수호의 기능과 함께 통일신라 전기부터 꾸준히 사천왕상이 표현되고 있다. 보통 사각형 사리기 네 면에 1구씩 선각線刻으로 표현한 것이 대부분이나 감은사 사리기와 같이 별도로 주조하여 붙인 예도 있다. 한편 통일신라 후기에는 육각형 혹은 팔각형과 같은 다각형 사리기가 제작되면서 범천梵天, 제석천帝釋天 등 다른 천부상과 함께 사천왕상이 표현되기도 한다.

사리기에 표현되기 시작한 사천왕상은 8세기 중반 이후가 되면 석탑의 표면에서도 등장한다. 탑의 경우 중심이 되는 초층탑신初層塔身 네 면에 배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통일신라 후기의 중흥사지 삼층석탑, 의성 관덕동 석탑과 같이 상층기단上層基壇에 표현된 사례도 있다. 또한 통일신라 후기로 갈수록 범천·제석천, 인왕, 팔부중 등 다른 천부상이나 불·보살상과 함께 신중神衆으로 배치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그림1. 감은사지 서탑 사리기, 통일신라 682년경, 높이21.6cm, 보물 366호



그림2. 나원리 오층석탑 사리기, 통일신라, 높이 15.2cm

특별전 <선인들의 마음, 보물이 되다>(1)

서유리 | 상설전시실 1층 114호 | 18:00~18:30

특별전 ‘선인들의 마음, 보물이 되다 新國寶寶物展 2014~2016’은 2014년에서 2016년까지 새로 지정된 121건(지정번호 기준)의 국보와 보물 중 50건의 문화유산을 선보인다. 서화書畫, 전적典籍, 도자, 금속공예 등 다양한 종류의 지정문화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국가지정문화재 자체의 아름다운 미적 감상은 물론 국보와 보물의 개념, 문화재 지정절차 등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보물은 유형문화재 중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지정한다.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한다. 보물과 국보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보와 보물의 지정 번호는 문화재의 가치가 높고 낮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지정된 순서이다. 보물은 일반적인 보물 지정 기준에 합당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동일한 수준, 비슷한 종류의 것들이 많아 지정수량도 국보보다 많다. 2016년까지 지정된 보물은 2,060건, 국보는 328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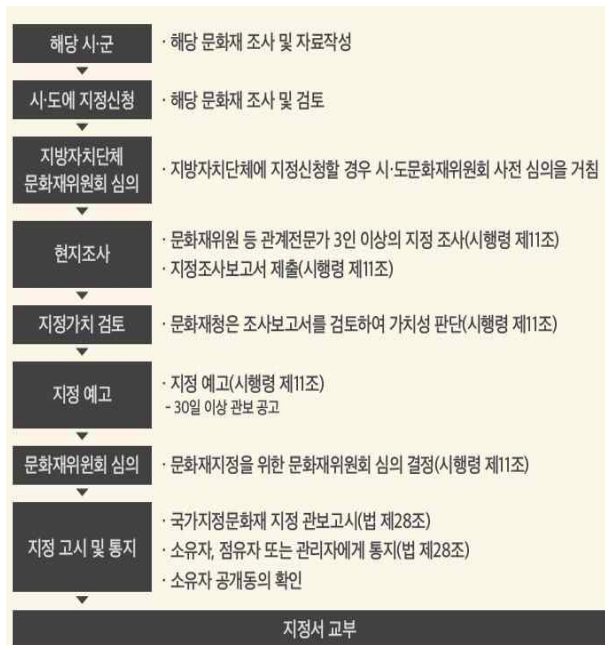


그림 1.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절차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는 문화재보호법 제23조, 제28조, 시행령 제11조 등에 명시되어 있다. 이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그림 1). 문화재의 지정뿐만 아니라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해 문화재위원회가 존재한다. 이들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해제, 현상변경 및 국외반출허가, 발굴, 중요 수리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정된 국보와 보물들은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된 공개조항을 기반으로 국민에게 소개된 것이 바로 이번 전시이다.

제541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7년 5월 17일)

돌로 만든 권력의 상징

윤지연 | 103호 청동기실 | 19:00~19:30

청동기시대는 사람들이 정착하여 대규모의 마을을 이루고 본격적으로 농경을 시작한 시기이며, 생산물의 분배와 집단 내외의 갈등을 조정하는 지배자가 출현하는 등 생계와 사회 조직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난 시기이다. 청동기시대에는 금속으로 된 도구와 꾸미개 등이 등장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전 석기시대보다 다양한 석기가 제작되었고 돌을 다루는 기술 또한 발전하였다. 이 중 마제석검磨製石劍은 돌로 만든 대표적인 청동기시대 권력의 상징물이다.

마제석검은 점판암이나 혈암 등의 돌을 곱게 갈아서 만든 칼로 양 옆에 날이 서 있다. 가로 단면은 긴 마름모 또는 볼록렌즈 모양이다. 길이는 대부분 30cm 정도인데, 수는 적지만 길이 60cm 이상의 대형 석검도 발견된다.

마제석검은 돌널무덤[石棺墓]과 고인돌 등 규모가 큰 무덤에서 주로 출토된다. 또한 손잡이 부분을 과장하여 의기儀器처럼 만든 칼을 볼 때, 청동기시대 마제석검은 모든 사람들이 소유하는 일상품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일부 특정 계층을 위한 위세품威勢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모든 마제석검이 의기儀器인 것은 아니며, 실제로 사용하여 날 부분에 사용 흔적이 있거나 부러진 것을 재가공한 것도 있다. 마제석검은 철기문화가 확산되면서 점차 소멸된 것으로 생각되며, 석검이 지니고 있던 권력의 상징성은 이후 한국식동검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림1. 마제석검(왼쪽부터 김해 무계리, 부여 송국리, 청도 진라리 유적 출토)



제541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7년 5월 17일)

고성 옥천사의 불교회화

정명희 | 203호 불교회화실 | 19:00~19:30

불상과 불화를 새로 갖추는 일은 지금이나 과거나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새로운 일을 기획하기 위해 뜻을 함께 할 사람을 모으고, 불화를 그리기 위한 자금이나 재료, 물품을 갖추어야 한다. 불사를 총괄하는 승려는 시주에 동참할 사람을 모으는 일 뿐 아니라 자신의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화승을 추천받고 일을 의뢰하는 일도 주관해야 했다. 불상과 불화는 시간차를 두고 연차적으로 조성되었지만, 상황이 허락한다면 한번 불사를 할 때 사찰에 필요한 불화를 한꺼번에 갖추고자 했다. 승장의 경우 한두 명이 작업하기 보다는 하나의 팀을 이루어 활동했기에, 한번 화승을 초빙할 때 필요한 불화를 일괄로 갖추고자 한 것이다.

옥천사 명부전의 상은 1670년에 제작된 것에 비해, 그 뒤편에 걸리는 불화는 70여 년 후인 1744년에 제작되었다. 이 시기 옥천사의 사세는 안정되고 대웅전이 중창되고 자방루가 지어졌다. 옥천사의 주요 전각에 필요했던 불화로 대웅전의 석가삼존상 뒤편과 측벽에 거는 〈영산회상도〉, 〈삼장보살도〉, 명부전의 〈지장보살도〉와 〈시왕도〉 10점을 합하여 총 13점이 조성되었다. 불화 제작을 총괄 지휘한 승려는 효안曉岸으로, 최현, 상오, 포근, 등순, 지심, 등한, 지성, 능학, 덕희, 덕잠, 환기, 일한 등 총 13명이 참여했다. 불화를 그리기 위한 기금과 물품을 모으고 불사를 완성하기 위해 동참한 인원만도 60여 명에 달한다.

〈옥천사 시왕도〉는 지옥을 다스리는 열 명의 왕을 각각 한 폭의 화면에 도해하였다. 이러한 형식은 18세기 후반 경상도, 전라도 등에서 폭넓게 그려진 시왕도 유형의 선구적인 사례이다. 화면 상단에는 용두로 장식된 의자에 앉은 염라왕이 관관의 보고를 받으며 망자의 죄를 심판하는 장면을 그렸다. 관복을 입고 머리에 해와 달이 새겨진 관을 쓴 염라왕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긴 모습이다. 채색 구름으로 구획된 화면 하단은 생전의 죄업을 비추는 업경과 이를 기록하는 녹사, 죄에 따른 형벌의 장면이다. 머리채를 잡힌 영혼을 거울 앞에 데려가니 도끼를 들고 있는 인물과 소가 비추인다. 이는 망자에게 살아있는 생명을 죽인 살생의 죄업이 있다는 의미이다.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다른 영혼도 포승줄에 묶인 채 업경을 올려다본다. 염라왕을 보좌하는 판관과 녹사는 판결이 기록된 망자의 명부를 펼쳐 보고, 업경에 투영되는 죄업을 적고 있다. 종이의 빈 여백은 아직도 기록할 죄가 남아 있으며 받아야 할 심판이 남아 있음을 암시한다.

제541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7년 5월 17일)

특별전 <아라비아의 길>(2)

- 마가르 지역의 선사문명

김승익 | 기획전시실 | 19:00~19:30

2010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남서부지역에서 중요한 발견이 이루어졌다. 한 낙타지기가 마가르(al-Magar)에서 물을 얻기 위해 땅을 파는 동안 돌로 만든 타조, 양, 염소, 매, 사냥개 등을 발견한 것이다. 갈판이나 가락바퀴, 돌칼 또한 발견되었다. 가장 크고 흥미로운 유물은 말과 비슷한 형상이다. 코를 가로 지르는 표식과 어깨 아래의 산등성이는 이른 시기의 고배 일부분인 듯하다. 화살촉과 석기들도 발견되었다. 고고학자들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을 근거로 이 동물상들의 연대를 기원전 8110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유적에서 유물과 함께 발굴된, 대형의 말 모양 상은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고고 유물로 평가된다. 가축화된 말에 대한 최신의 연구 결과, 말을 가축으로 키운 것은 5500년 전의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가 최초였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 발견으로 말의 가축화는 그보다 훨씬 이전에 아라비아 반도의 중심부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어났음이 확인되었다. 말의 목과 가슴을 표현한 이 상의 크기는 거의 1m에 달한다. 이 정도 크기의 동물상은 비슷한 시기에 전 세계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터키, 요르단, 시리아에서 발견된 형상은 크기가 작고, 연도도 더 늦으며, 말 형상도 없다. 이 유적에서 발견된 거대한 말 형상은 목의 길이나 머리의 형상으로 볼 때 순수 아라비아 혈통의 말과 유사하다. 머리 부근에 확연히 보이는 굴레 형태는 이 유적의 사람들이 이른 시기부터 말을 가축으로 키웠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 동물 조각상들은 지금도 해당 장소에서 발견되는 돌로 만든 것들이며, 유적 한가운데에 폭포 앞 남쪽 강변에 세워진 구조물에 놓여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구조물은 이곳에 살던 사람들의 사회적 삶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1. 말(Part of a horse), 마가르, 기원전 8110년경, 86×52×18cm,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